

잡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20. SEP + OCT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안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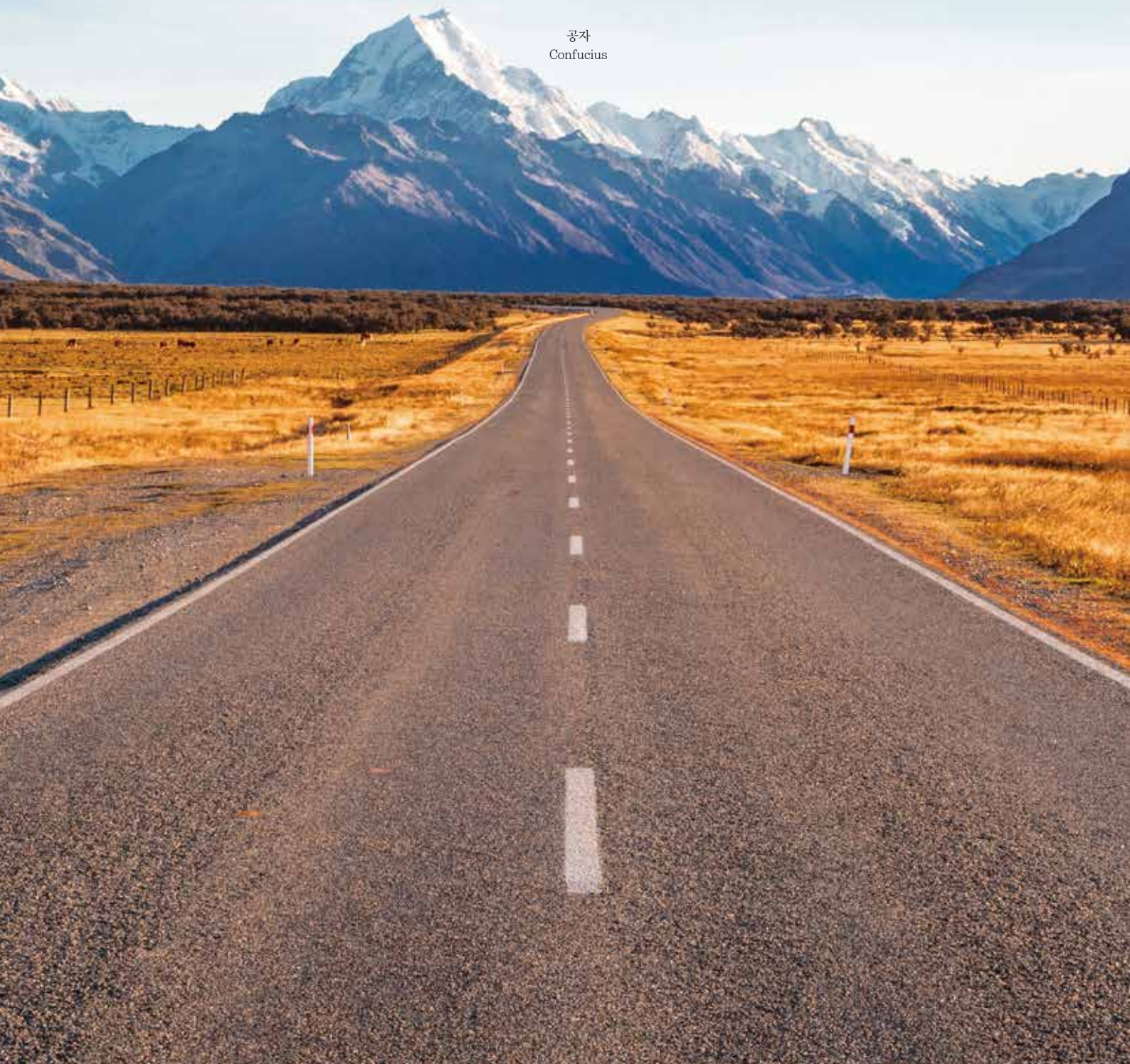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prologue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Wheresoever you go, go with all your heart.

공자
Confucius



Contents



2020.
sep + oct

발행일 2020년 9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004	special report
009	hot issue
012	power interview 김우경 변호사
016	letter from 박다혜 변호사 이진혜 변호사
020	real story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강태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송규상
024	contest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028	happy lawschool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김동현
031	opinion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037	book
038	#
040	health mentoring
042	art sonata
044	law toon
046	culture
048	akls news
049	out campus
051	quiz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2019년 법무부의 용역과제로 진행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에는 총 네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서비스 제도와 시장 현황, 법조인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과 변호사시험 합격 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 등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담겼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제도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추세를 파악하고, 관련된 법조인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법조인력 규모 산정에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1 법률서비스 제도 및 시장현황 조사 연구

<우리나라 법조인 현황>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적 법조인(단위: 명)	검사	1,808	1,865	1,902	1,977	2,012	2,052	2,083	2,121
	판사	2,636	2,738	2,779	2,795	2,851	2,907	2,848	2,964
	변호사	12,607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공익법무관	211	294	387	530	581	622	583	469
	군법무관	553	549	555	544	556	559	570	582
	합계	17,815	19,980	22,170	24,554	26,531	28,458	30,099	31,974
GDP(단위: 억달러)		11,145	11,296	11,975	14,495	14,351	14,044	15,297	16,556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1.60	1.77	1.85	1.69	1.85	2.03	1.97	1.93
총 인구 수(단위: 만명)		5,073	5,094	5,114	5,136	5,153	5,170	5,178	5,182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3.51	3.92	4.34	4.78	5.15	5.50	5.81	6.17
법조인 1명당 인구		2,848	2,550	2,307	2,092	1,942	1,817	1,720	1,621

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 제공 자료, 2019

-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는 '11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약 1.8배 증가했다. (3.51명 → 6.17명)
- '18년 기준 국내 법조인 수는 31,974명으로 '11년 17,815명, '13년 20,000명을 넘어선 이래 '17년 처음으로 30,000명 이상이 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18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는 약 6.17명으로, 일본보다 약 70% 정도 높으나, 프랑스에 비하여 약 60% 수준이다.

◆ **송무시장 변화 추세**

- 송무시장을 민사, 형사, 가사, 특허소송사건 수로 보면, 2009-18년 사이 민사사건 총 접수 건수는 14.9% 늘어났으나, 형사, 가사, 특허소송사건은 모두 감소추세이다.
-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도 과거와는 다르게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사건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데 반해, 독촉 건수는 크게 증가 중이다.
- 국내 법률서비스산업 매출규모에 대한 국제청 전문직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에 따르면, 2015년도 변호사업계 과세표준액은 4.6조 원, 2006-2015년 10년간 매년 6.7% 증가를 기록해왔으나, 10대 로펌을 제외한 일반 로펌 및 개인 변호사 매출액은 1.5조로 추산되어 상당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 법률시장의 송무 사건 증가는 연평균 2%로, 5-7% 성장을 기록한 법률시장 매출액 및 과세표준액 증가를 보면 비송무, 즉 법률자문 및 비소송 분야가 법률시장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사내 변호사의 증가는 법조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채용과 관련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것이나, 법률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외부 법률시장에서는 매출액의 증가요인이자기 보다는 감소요인이다.
- 정해진 송무시장의 성장률(GDP 대비 1.2% 낮음)에 비해 매출액 기준 5-7%의 법률시장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비송무영역으로 나타났다.

2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 : 송무 외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단위:명)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변리사	6,719	7,012	7,210	7,745	8,176	9,051	9,305	9,480	9,710
법무사	6,120	6,196	6,256	6,346	6,516	6,653	6,759	6,846	6,965
세무사	9,621	10,032	10,533	11,167	11,613	12,127	12,654	13,110	13,508
공인 노무사	1,776	1,999	1,980	2,406	2,613	2,766	2,848	3,260	3,568
공인 중개사	84,158	82,595	82,196	86,228	91,131	96,050	101,000	105,000	100,000
행정사	-	9,319	75,809	163,838	214,499	280,289	327,232	353,725	고지 거부
감정 평가사	3,103	3,287	3,459	3,620	4,020	4,187	4,323	4,462	4,088
관세사	1,419	1,464	1,510	1,752	1,842	1,867	1,887	1,951	1,982
합계	112,916	121,904	188,953	283,102	340,410	412,990	466,008	497,834	136,113 + α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 직역에 있어서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는 더 세분화된 자격사의 종류가 있다. 세분화된 자격사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변리사, 세무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정도의 유사직역이 있고 독일은 변리사, 세무사 유사직역이 있고 프랑스에는 변리사, 미국에는 없다.
- 우리나라가 전문자격사를 세분화해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자격사가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특화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으나, 과거 변호사가 희소하여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하며,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가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조 인접직역, 유사직역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학계를 비롯한 법조계의 요청이며,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3 법조인 양성 교육과정 현황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결국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졸업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이 질적 수준을 갖춰야 하고 일단 그러한 교육이 갖춰졌다고 평가된다면 교육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의 시험제도를 운영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나아가 법조인 양성에서 교육보다 시험이 우선되게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정성 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여섯 항목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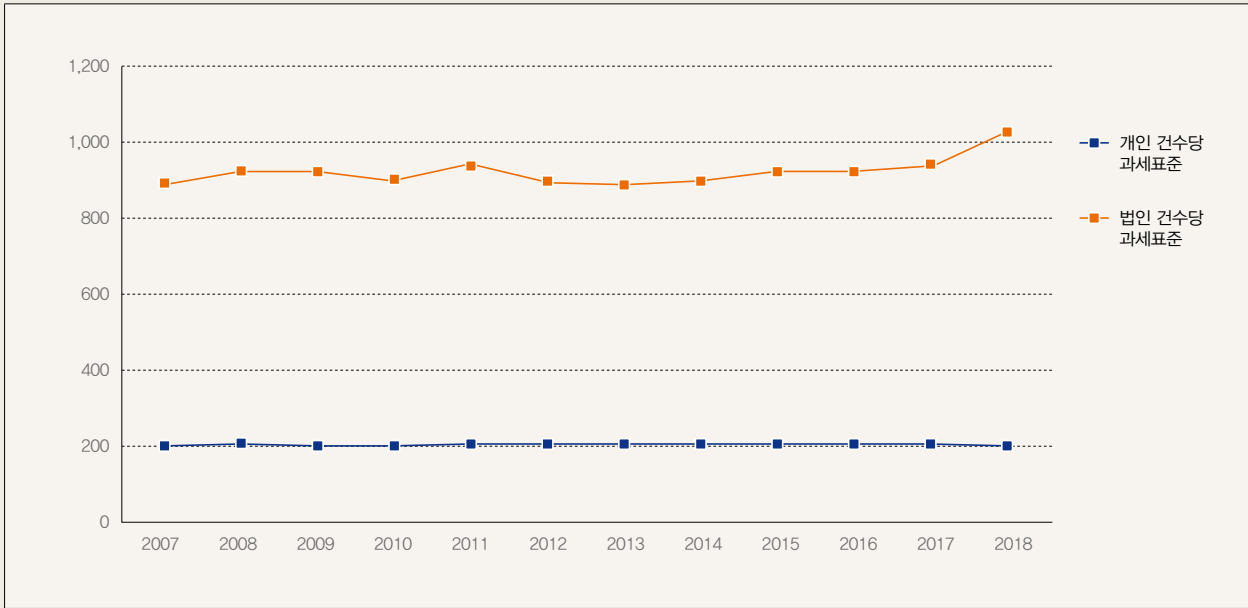
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 보장하는지 ② 이론교육을 토대로 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지 ③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전문화·국제화된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지 ④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숫자의 전문적인 교원을 총원하고 있는지 ⑤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교육과정의 이수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장하도록 하는지 ⑥ 이러한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사후 평가할 수 있는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에 대한 논의보다는 입학정원과 변호사 배출 숫자의 연동에 집중하였는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설립당시의 정책적 방향은 지금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4 변호사시험 합격 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변호사 공급에 대해 양적 규제보다는 질적 규제를 하는 이유는 변호사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변호사의 공급이 상당한 정도의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장에 의한 조정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견해도 적정 변호사 수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 법원원 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등록 변호사의 수는 12,607명에서 25,838명으로 약 105%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8,709건에서 13,822건으로 58%만 증가하였다. 이는 ①법인의 규모가 확대, 즉 법인에 소속된 평균 변호사의 수가 증가한 것과 ②사내변호사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건수 대비 과세 표준〉



- 개인의 경우, 그리고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법인의 경우에도, 건수당 과세표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당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
-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장기적인 변호사 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기준선(Baseline)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선은 법원원 도입취지, 법조인 수급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국 법조인 수(2018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법조인 수	1,338,678	215,442	75,271	192,096	44,805	31,974
변호사 수	1,338,678	209,464	66,958	165,855	40,066	25,383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 (전년 대비)	6.52 (-0.89)	7.67 (-0.99)	2.69 (-0.17)	4.76 (-0.68)	0.88 (-0.02)	1.93 (-0.04)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 (전년 대비)	40.97 (-0.23)	32.36 (-2.3)	11.54 (+0.58)	23.34 (+0.38)	3.52 (+0.07)	6.17 (+0.36)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	6.86	6.79	2.61	4.63	0.89	1.50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0.85	31.20	10.30	19.95	3.15	5.01

출처: 주미국, 주영국, 주프랑스, 주독일, 주일본대사관 제공 자료, 2019

-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입학정원 대비 현행 75%(1,500명)와 65%(1,300명), 85%(1,700명)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하여, 이러한 규모의 신규변호사가 공급되었을 경우 변호사 시장 관련 주요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다.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 국제비교〉

(GDP 중위 시나리오, 주요국 변호사 수 최근 추세 유지 가정)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	입학정원 대비 65% 선발	입학정원 대비 85% 선발					
2018	5.01	5.01	5.01	40.85	31.20	19.95	10.30	3.15
2020	5.39	5.31	5.47	41.28	32.32	20.11	10.83	3.38
2030	7.25	6.81	7.68	43.42	38.18	21.85	13.42	4.68
2040	9.10	8.32	9.88	45.79	43.98	23.76	16.03	6.19
2049	11.06	9.95	12.17	48.06	49.16	25.73	18.52	7.74

〈GDP 1억불 당 변호사 수 국제비교〉

(GDP 중위 시나리오, 주요국 변호사 수 최근 추세 유지 가정)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	입학정원 대비 65% 선발	입학정원 대비 85% 선발					
2018	1.50	1.50	1.50	6.86	6.79	4.63	2.61	0.89
2020	1.54	1.52	1.57	6.73	6.98	4.66	2.70	0.93
2030	1.66	1.56	1.76	6.18	7.47	4.44	2.98	1.13
2040	1.78	1.63	1.93	5.70	7.70	4.24	3.17	1.28
2049	1.87	1.68	2.06	5.28	7.79	4.08	3.29	1.41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전원 정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즉 신규 변호사 공급 규모를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유지하는 현재 방안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가 감소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합격자의 질 관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입학 정원의 85% 수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여도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연 1,300명, 연 1,500명, 연 1,7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될 경우에도 인구당 변호사 수, 경제규모 당 변호사 수 등의 지표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년 합격률을 정하는 데에서 응시인원이 고려사항이 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시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던 시기로 인해 응시인원이 증가하였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는 조정이 가능하다.

issue 01

로스쿨, 2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문 연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내달 1일 개강을 앞둔 전국 25개 로스쿨이 잇따라 비대면 강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연세대는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당초 2학기 개강 후 2주간 수강인원이 50명 이상인 수업에 한해서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단 모두 비대면 강의로 학기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도 개강 후 일정 기간 비대면으로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20-08-28 /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issue 02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팀 최종 우승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예선을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7일(목)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8개 본선 진출 팀은 공심단 팀(서울대 법전원), 놀면뛰행 팀(연세대 법전원), 아주잘행 팀(아주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연세대 법전원), 위민행정 팀(부산대 법전원), 행법하자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심행 팀(아주대 법전원), 행진(眞) 팀(서울대 법전원)이다. 이날 최종 우승은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 팀이 차지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issue 03

로스쿨 입학설명회도 온라인

매년 8월 말 열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그 대신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은 자체 입시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대(9월 7일) 강원대(9일) 고려대(10일) 한양대(14일) 성균관대(16일) 등은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한다. 전남대(8월 27일) 전북대(9월 12일) 경북대(16일) 등은 대면 설명회를 한다.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 원서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

기사출처: 한국경제신문 2020-08-26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고등군사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를 취소하였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증진을 위해 고등군사법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3회 대회의 경우 17개 로스쿨에서 27개팀이 참가했을 만큼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 부모 - 자식 생이별하게 만든 제도, 개선 시급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 자격’ 개선 진정서 낸 소라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배우자 없이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시한부의 삶입니다. 자식이 커서 성년이 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단지 결혼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소라미(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임상교수는 최근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 자격’의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학기 진행한 임상법학 강의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을 수강했던 제자 7명도 뜻을 모았다.

소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부모 결혼 이주민은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더는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자식의 고리를 끊는 잔인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와 처음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인 250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 가정은 3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행정은 늘 한발 늦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15년이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던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로스쿨에 부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주제로 임상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얼마 전 한 이주여성단체로부터 전해 들은 한 이주 여성의 사연은 소 교수가 그간 접했던 다른 이야기보다도 더 안타깝게 다가왔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가정을 이끌어 가던 필리핀 출신 여성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고 입국한 이 여성은 딸이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 교수는 “국가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

소라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공]



다”며 “게다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이 아닌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편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약을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손을 봐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안정한 체류 조건 탓에 결혼 이주인이 가정 폭력을 당했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혼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더라도 편견 어린 주변 시선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 교수는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인을 꿈꾸는 지망생이라면 법전만 펴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고 느껴보야 ‘인권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을 다룰 기회를 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마주한 법의 모습이 새롭다는 반응이다.

소 교수와 함께 진정서를 작성한 제자 중 한 명인 석재아(25) 씨는 “나를 포함한 수강생 대부분이 관련 정책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결혼 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거세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여론을 경고했다.

“더는 다문화 가정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나 소수자란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고, 재난지원금 등 복지 정책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외면받았죠. 아직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020-08-25 / 이상서 기자 shlamazel@yna.co.kr

6.25 전사자의 딸이 67년 만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고, 반세기 넘게 호적 없이 살아온 할머니가 성과 본을 얻게 된 이야기. 이처럼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의뢰인들의 사연은 셀 수 없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의뢰인들을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우경 변호사를 만났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요.”

대한 법률구조공단 김우경 변호사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

어린 시절부터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역사는 순수학문이라 재미있기는 했지만 역사학자가 되었을 때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반면, 변호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타인 나아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를 워낙 좋아해서 진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법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는 계속 법조인을 꿈꿨다.

로스쿨 재학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로스쿨에 다닐 때 인권법학회 활동을 했다. 졸업 후 인

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그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직에 계신 선배 법조인들의 초청강연을 기획했었다. 학교 본부에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말이니 남은 예산을 좋은 일에 쓰자’고 설득해서 지원금을 받았다. 약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은 초청 변호사님들의 사례금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열심히 준비한 행사인 만큼 학우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듬해 학회 지원비를 깎았다고 하더라(웃음). 후배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난다.

현재 재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업무도 소개해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설립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90%는 소송 또는 소송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 외에는 부수적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보직이 없지만, 보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업무까지 겸하게 된다. 기관의 특성상 외부의 변호사님들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 위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조력이 필요한 분들의 사건이라면 민·형사, 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하는 일에서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사, 행정,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하고 있다. 로펌에서 송무를 하는 변호사들과 업무의 성격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뢰자의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부수적인 상담 업무는 '소송을 위한 상담'을 말하는 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소송 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

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변호사가 아닌 직원분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내가 진행하는 상담 업무는 대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 사이버 상담의 경우 즉문즉답이 어렵고, 질문하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

우에는 방문 상담을 권하고 있다.

배당되는 사건의 양은 많은 편인가? 원치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구조겠나.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공익 법무관 인력에 따라서 사건을 배당해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 사건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배당이 된 사건들은 경우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자력의 부족으로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소송 대리까지 진행할 경우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본인 비용 부담이 원칙에 더 가깝다. 다만, 사선 변호사들의 수입료는 적게 받아도 백만 원 단위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수입료는 많아도 몇 십만 원 수준이다. 특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송 관련 비용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고, 대상자의 범위도 비교적 넓은 편이라 실제로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다.

법률구조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달라.

법률구조의 절차는 상담부터 시작하는데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의 소송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별도로 접수받고 있으며, 이 절차까지는 행정직원분들이 하고 있다. 이후에는 변호사들이 규범에 따라 소송의 내용 등이 판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 후 개별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 법률구조 활동을 하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맞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감이 더욱 커져서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사

건 자체는 아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한다.

법률구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일을 하다보면 변호사 선임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건의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덕분에 사건을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실 때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흔히들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웃음) 동의하나?

'신의 직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과 '급여 만족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전문직에 속해서 이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급여도 아주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형 로펌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장점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건 수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이다. 개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건 수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대신(웃음), 수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무엇보다 공익적 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직원분들도 모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다.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하는 일에서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장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반면 단점도 있을 것 같다.

순환근무라는 큰 단점이 있다(웃음). 인사이동을 통해서 근무지역이 변경되는데, 한번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발령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난다. 나의 경우에도 입사 후 3년 동안 창원지부에서 근무를 했고, 최근에 서울

북부지부로 발령을 받았다.

물론 받아들이기엔 따라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 스타일의 차이인데, 나처럼 부양가족이 없으면 오히려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경남 창원엔 가볼 일이 없을 텐데, 발령 덕분에(?) 즐겁게 근무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힘들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라기보다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132곳¹⁾에 설치되어 있고, 곡성읍, 울진읍 등 읍·면 단위의 지역에까지 지소가 설치되어 있어 변호사들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법률구조를 해줄 수 있다. 공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률구조를 해주는 것인데, 작은 마을에까지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교적 대도시인 창원지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비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워라벨은 어떤가?

기관마다 차이가 큰 편인데, 서울북부지부의 경우 사건이 많은 편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쁘기로 소문난 대형로펌에 비하면 업무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로펌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다. 퇴근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 바쁜 시기에는 야근·주말근무를 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18시 퇴근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팁을 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성적이 좋아야 한다. 나는 회

사 문을 닫고 들어온 케이스이긴 하다(웃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고 2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만 선발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뜻이 있다면 로스쿨 졸업 후 2년 동안은 다양한 곳에서 송무 경험을 쌓고 그 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겠다.

향후 계획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편이고 보람도 많이 느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법학 교육이다. 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수료까지는 마쳤는데, 게을러서 논문을 쓰지 못한 상태다(웃음).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지금도 간간히 특강 요청이 들어오면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

6년차 변호사로서 로스쿨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법학과에 입학한 후 과연 법학이 나와 맞는 학문인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다. 방향을 하고 전공 공부를 등한시켰더니 학부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로스쿨 입학할 때 꽤 고생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학점이 점점 좋아지고 오히려 학부 때보다 법학공부가 재미있어졌는데, 그 계기가 바로 '실무수습'이었다. 방학 때마다 2-3개의 기관에 실무수습을 다녔는데, 선배 법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접하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현업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필드에서 업무를 해보니, 변호사가 되면 당장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느라 여유 있게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가끔 사석에서 후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옆에 있던 동기들은 '너도 그렇게 즐기면서 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며 웃는다. 나는 못났지만 자식은 잘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웃음).

1)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3개 지소

직접 몸소 배운 교훈



법무법인 태을

박다혜 변호사

처음 임신하여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여성전문병원을 찾았다. 담당의사는 매번 너무도 불친절했고, 진료를 받고 나서 우리 부부는 ‘우리가 뭐 잘못했나?’를 연발했다. 하지만, 내 몸, 내 뱃속의 아이가 달려 있으니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별서는 아이 마냥 눈치코치 보며 진료를 10개월 받았다. 결과적으로 분만 이후 사고가 터졌고, 나는 대학병원에 전원 되었다. 그 후로 겪은 6개월 간의 고초와 수술 이야기는 내 인생 어느 순간 보다도 힘겨웠고, 내 마음속에 묵직한 추를 달았다. 아직도 간혹 그 무거운 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다.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1. 아픈 사람은 통증에 더 예민하다.

마취를 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간 고름을 짜냈다. 집게가위가 몸을 파고들 때마다 나의 새된 비명이 병동을 찌렁찌렁 울렸다. 치료를 받고 나오면 암병동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젊은 처자가 무슨 문제가...쫓쫓쫓’ 안타깝게 쳐다보셨다. 나는 본래부터 잘 참는 성격이라 자부했기에 매주 의사 앞에서 태연한 척 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의자에 앉았는데 오른쪽 다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본래 오래 아픈 사람들이 통증에 더 예민해요.’ 난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다. 그러고보니, 나는 정말 점점 병원에 오는 것이 무서워졌다. 의사와 짧게 이야기한 뒤 내가 받는 처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딱 20초만 눈뚱감고 버티면 되는 그게 너무도 나를 나약하게 만든 것이다. 후에 알고보니,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통증을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은 통증에 더 민감해진다고 한다. 그만큼 아픈 사람은 피병이 아니라 실제로 점점 더 아픔을 잘 느끼게 된다.

2. 전문가라고 믿으면 안 된다. 내 인생, 내 몸이다.

처음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눈치 챌어야 했다. 나에게 배정된 의사는 매우 무례했다. 그런데 예약하고도 한시간 기다리는 건 당연인 여성병원에서 그나마 그 의사가 대기시간이 제일 짧았다. 의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나는 의사라는 전문직이 가진 직업적 윤리를 믿었다. 불쾌한 건 내가 참고 대신 의사는 진료만 잘하면 되니까, 내 시간과 친절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 대학병동을 오다닐 때, 출산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가 왔다.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왜 그러셨어요. 내 몸을 맡기는 일인데, 진작에 의사를 바꾸던가 병원을 바꾸셔야죠.’ 순간 멍 했다. 그러게,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세상 만만하고 자신했을까. 너무나 미련하고 게을렀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내 인생, 내 몸인데, 결국은 내가 꼼꼼히 챙기고 살폈어야 했다.

3. 가제는 게 편이다.

전원 된 대학병원은 출산 병원이 소개해 준 곳이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는 정말 나를 걱정한다는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했다. ‘소송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헛수고로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했다. 들

으며 참다 못해 말했다. ‘선생님, 저도 변호사입니다. 의료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의사는 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수 차례 너무 아프고 통증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고, 옆 방 원장도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치의의 꼭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치의는 제가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또 아프다고 찾아왔다며 저를 진료실 밖에 한시간 반을 대기시키더니, 진료실 의자에도 못 앉게 하고는 돌아가시라, 기타 등등’. 그러자 의사는 나와 같은 반응을 많이 보았다는 듯이 짧게 일축했다. ‘그렇죠. 다들 감정 때문이죠.’ 그래, 나도 결국은 그렇게 원오브렘이 되었다.

4. 전문가에게 받은 배신은 오래간다.

나름의 학습효과가 있었는지, 나는 출산병원과 연계된 대학병원 말고 다른 병원도 한번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제 전문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새로 만난 의사도 나를 잘못 진료하면 어떡하지?’ 분명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면 이제는 내가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스러웠다.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구나. 상대는 의사다. 의사는 의사들의 편을 드는데, 내가 아무리 목소리 내어 외쳐도 나만 망가지겠구나. 아 찼했다. 믿었던 존재에 대한 배신감은 나의 판단력을 그렇게 좁혀고 있었다.

5. 보이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곳의 균열이 더 길고 오래간다.

수술을 무사히 잘 받았다. 정말 도 닦는 생활을 했고, 의사는 관리를 잘 해서 다행히 수술경과도 좋다고 하였다. 수술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의자에 앉아서 밥 숟갈을 뜨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장장 출산 후 6개월 만에 ‘일상’이란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전쟁이 끝난 후유증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상을 되찾았다. 대학병원 의사에게 찾아갔다. 진단서를 발급 받겠다고, 의사는 후유장애는 잘 나오지 않을거라고 한다. 난 억울했다. 보이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균열이 내게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난 수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집에는 돈 들여 설치한 설비들이 있었고, 이전에는 편하게 누리던 일들도 아주 미묘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예전으로 되돌리지 못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까먹었다. 나에겐 새로운 생활습관과 절제가 필요했다. 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출산한 병원은 새로운 빌딩을 올린다고 가열차게 공사 중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더 몰리나 보다.

6.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어렵다.

대학병원에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갔다. 목적이 ‘법원제 출용’이라고 하니, 담당자가 긴장을 하였다. 한참을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나를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발급해준다. 그때 너무 외치고 싶었다. 나는 피해자라구요!! 내 피해를 공감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정말 나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까? 내 말을 믿어줄까? 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구요!!

7.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변호사를 찾아오는 이들은 인생에서 힘겨운 순간을 지나는 이들이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거듭거듭, 연거푸 수많은 나의 의뢰인들이 생각났다. ‘변호사님, 저 이 소송 정말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저 정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젠 다 귀찮고 그만두고 싶어요.’ ... 내가 겪은 이 사건에서 문제적 의사는 문제적 변호사에 고스란히 비견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8. 정보격차

정보격차를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 주변에 의료계에 몸담은 사람이 없으니 결국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나의 의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인생에 한번을 만날까 말까한데. 좋은 변호사님들에 대한 정보를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님들은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갈 수 있도록!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사무국장

2015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동안 학교를 떠나있었습니다. 3~4년이 흘러 공익인권법학회 후배님들을 만나러 저녁 시간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수다를 떨며 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200미터 넘게 걸어가는 동안 한번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 내지는 교환학생이었던 것이었을까요? 학부 재학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마주치지 못했던 풍경이 잠시 낯설었습니다. 제가 이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돌이켜보니 학교 앞 상권도 꽤나 변한 것 같습니다. ‘중화요리’ 대신 양꼬치집이나 마라탕집이 많이 생겼고, 외국인 전용 휴대폰 가게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림동 지역이야 원래 이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많이 오고가는 곳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앞이 이렇게 변하였구나, 하고 새삼 신기했습니다. 학교 수업 역시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이 늘었을까, 여러 나라, 여러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비정상회담’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까 싶습니다.

유학생들이 늘어난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일손을 메꾸기 위해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 등 오묘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의 숫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자의 숫자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이 얼어붙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일손은 계속 필요할 테고 이주민의 숫자는 증가하리라고 여전히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갑니다.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유명한 구절처럼,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제도 설계자는 오롯이 홀몸으로 와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성실한 근로자를 기대하고 이를 전제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인간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사장님들은 ‘일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금만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기대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낳고, 점수제 전문 취업 제도를 낳고, 20대의 청년 이주노동자는 40대가 될 때까지 성실히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만 ‘노동자’ 정체성 이외의 것은 체류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아이도 낳아 잘 키우기를 기대하며 맞선

을 보고 결혼을 하지만, 현실의 결혼 생활은 문화 차이, 생각 차이로 유지되기 힘들기도 하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부부의 결혼으로 한국의 남편 사망 후 혼자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여생에 대한 롤모델이나 사회적 안 전망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경을 넘기가 쉬워질수록 국경의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나라의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 국민임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다른 나라의 소식이 쉽게 전달될수록,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가 가진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어느 나라는 미등록체류자의 노동생산이 그 지역을 지탱하고 있다며 이주민에 대하여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언하였고, 어느 나라는 보편적 방역과 의료지원을 위해 미등록체류자에게 임시로 체류자격을 주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룬 자’ 내지 ‘영주권자’ 외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못 됩니다. 아직 한국의 법제도는 ‘국민’ 이 아닌 사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생들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면서 ‘주민등록’ 이라는 요건을 설정하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배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사람의 권리’ 인지, ‘국민의 권리’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이미 그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개정 논의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국경을 넘으면서 불박이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70세의 중국 동포 할머니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산다는 것, 뿌리라고 믿는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 가지게 되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 설정, 다른 사람들과의 마주침과 갈등, 어려움과 연대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 어렵듯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주민의 경우는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 근현대사를 몸으로 살아낸 분의 종적인 생애를 듣는 것과 비슷하게 지역과 장소를 넘나드는 횡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힘든 소송 수행 과정에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 요소입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곤란한 상황에 빠진 이주민들이 편하게 오고갈 수 있고,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로스쿨 1학년생일 때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현재 월급을 받으며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인데요(제가 로스쿨 4기니까 8년째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고충을 듣고, 기존 법제도를 활용하여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력하고, 그걸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복지제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의료비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필요성과 절박성에 공감하여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계기로 이주민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그 ‘가까운 미래’를 밝게 그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혜 사무국장

201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번호사시험 4회)
2016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내변호사
2017년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오롯이 공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강태훈

1. 책상

슈퍼전파자가 화제였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살고 있던 기숙사는 시에서 치료시설로 쓰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당장 방에서, 열람실에서 쟁길 것이 많은데 막막했습니다. '봉쇄령'이라는 무서운 말이 포털 사이트 상단을 차지하던 때였습니다. 택배사들도 배송을 주저했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사러 나선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주위에 어떻게 자취방을 얻더라도 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선택지는 집뿐이었습니다.

오래 타지 생활을 했기에 집에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잠은 어디서든 자도 되었지만 당장 공부할 책상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에 새로 책상을 사기는 주저되었습니다. 잠깐이라면 식탁에서라도 공부를 하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바로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 공간을 찾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하노라면 머릿속에서 슬한 재난 영화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별안간 눈을 떠보니 좀비의 세상이 되었더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도 했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둘러싼 음모를 파헤치는 해결사가 된 듯도 했습니다. 사회가 있기에 법이 있다면 당장 지금 무얼 해야 할지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집밥을 먹으며 트롯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곤 했습니다.

2. 음소거

바람(?)과 달리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강의였습니다. 교수님들은 직접 강의를 녹화해서 업로드하시거나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서버가 불안정했기에 강의를 제 시간에 듣지 못하게 되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강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외로 '음소거'였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시 기본적으로 기기의 마이크·카메라 기능이 켜지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값이

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에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켜져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해프닝이 잦았습니다. 난데없이 강의 중에 얼굴이 노출 되거나 대화, 개가 짚는 소리가 들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강의에 참여했기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혹시나 마이크나 카메라가 켜진 원우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어색했던 비대면 강의에도 차츰 적응해갔습니다. 곧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원하는 부분을 복습하기가 용이해서 편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대면 강의 없이 마무리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사실 대면 강의라는 말도 비대면 강의가 없었다면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처럼 어색하기만 합니다.

3. 줄다리기

다행히도 5월 중순에는 기숙사에 돌아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은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대로 시험을 본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문제는 기말고사였습니다. 전 과목의 범위가 전 범위였습니다.

성적 평가 기준에 관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면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험의 공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P/F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면시험을 치르고 성적기준만 '완화된 상대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A 학점'의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해진 기준이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전까지 'A학점'은 성취의 기쁨, 노력의 결실이었고, 설령 'B학점'을 받더라도 낭패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 하에서는 'A학점'은 받아야만 하는 학점이었고, 'B학점'은 모하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자괴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을 전범위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과목이라도 미흡하게 되면 타격이 컸습니다. 기말고사 한번이었기에 만회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변별의 측면에서도 실력보다는, 누가 학점을 후하게 주는 수업을 더 많이 들었느냐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컨디션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행여나 의심증상이 있게 되면 한 학기의 시험을 모두 치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최저학점을 받게 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제도를 위해서 대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개인만 지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시험과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견주었을 때 무엇이 먼저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줄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기존의 기준을 고수해도 무방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성적을 상향평준화시켜서 오히려 성적 산정의 질서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가 팽팽하다고 해서 그 줄을 자르게 된 이상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4. 오롯이 공부

각자가 각자의 어려움을 오롯이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떠돌고 교수님께 별 것 아닌 질문도 편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열람실에서 말없이 함께하던 원우들이 없어 허전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부사어 '오롯이'를 두 개 실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하게'라는 뜻을 생각하며 '오롯이'를 찾았다 새삼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라는 뜻의 '오롯이'가 보였습니다. 부디 2학기는 모자람 없이 온전한 환경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로스쿨 3학년의 눈에서 바라본 변호사시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송규상

들어가며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로스쿨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10회 시험을 앞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필자 본인도 로스쿨 학생으로서 이와 관련한 많은 의견을 접해왔다. 경험상 변호사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다수를 이루는 것 같다. 로스쿨 자체가 아직 완전히 시행착오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다소는 불완전한 현 변호사시험 체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쏟아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번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발견한 현행 변호사시험의 긍정적 측면들도 여럿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응시횟수 제한 및 적절한 합격률은 수험생에게 건강한 자극제로서 작용한다.

횟수 제한과 합격률 결정에 관한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도 이해당사자로서 한쪽 극단에 위치하기에 이에 대한 논쟁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느낀 바를 표출하자면, 현행 합격률 및 응시제한의 압박이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합격의 두려움이 있기에 로스쿨 전학년 과정을 거쳐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본법과 실무과목 모두를 익히기 위해서는 쉬는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절대다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면 과연 이처럼 방대한 범위를 충실히 공부할 유인이 존재할지 의문이다. '불합격의 두려움'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방대한 법학을 3년의 단기 기간 내에 충분히 소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촉매'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합격률이 10%~30%대로 추락한다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위와 같은 노력의 유인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반면, 현재와 같이 50% 인권의 합격률 내에서라면 불합격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반 안에 들면 합격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출혈적 경쟁까지 나가지 아니할 수 있다. 5회로 시험기회가 제한되는 것 역시 적절한 한도에서 노력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현행 변호사시험의 적당한 긴장감

은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판례 위주 법학 학습으로 인한 순기능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다보니 자연히 판례 위주로 압축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공부에 대한 비판은 보통 이론 공부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단기에 이해 없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필자는 법학교육론적으로 이론과 판례를 어느 정도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로스쿨 3학년으로서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이와 같은 공부의 결코 이론과 학설을 등한시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판례에는 이론적 함의가 내재해 있다. 특정 재판에서 일정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이론적 근거들이 함께 제시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견해가 판례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 공부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문구만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중요 판례를 공부할 때 결국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게 되고 그에 관하여 판례가 예외사유, 방론 등을 실시하면서 견해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판례를 외우는 데는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기준, 대립되는 견해까지 모두 학습하게 된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에 나오는 그 많은 판례를 생각없이 단순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해당 판례가 어떠한 문제 영역에서 적용되고, 어떤 판단기준이 있는지, 어떠한 대립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안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컨대,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에서의 판례학습이란 상기한 문제영역, 논의과정,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그 근거 및 비평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암기적 학습이라는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판례 위주 학습 자체가 실제로 실무에서 중시되는 문제를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합격 후 업무와의 연계성 높은 공부를 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변호사시험과 연계성 높은 3학년 수업

그런데 위와 같은 학습은 학교 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수험법학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연 로스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1,2학년 수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3학년 수업의 존재에서 로스쿨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학년 수업은 다양한 실무과목과 연습과목이 개설되는데 위 수업은 학계에서, 혹은 실무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께서 수험적 성향을 가미하여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 이는 기존 사시체제 및 로스쿨 초기의 문제로 제기되던 법학수업과 사법시험과의 괴리라



는 문제와 학원 및 인터넷 강의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학교 교수님들이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주시는 강의는 단순히 학원 강의 내지 인터넷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학교와 학생별로 상황이 다르고, 학원 강의 의존율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로스쿨 체제 내에서 학교 수업이 고차원의 지식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그것이 변호사시험 공부가 된다는 점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체제만의 순기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8월 27일 다섯 번째 경연대회의 막이 올랐다.

8월 27일(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전국 14개 법전원 22개 팀(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이 진행되었으며, 본선 경연은 예선을 통과한 8개팀(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경연대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대회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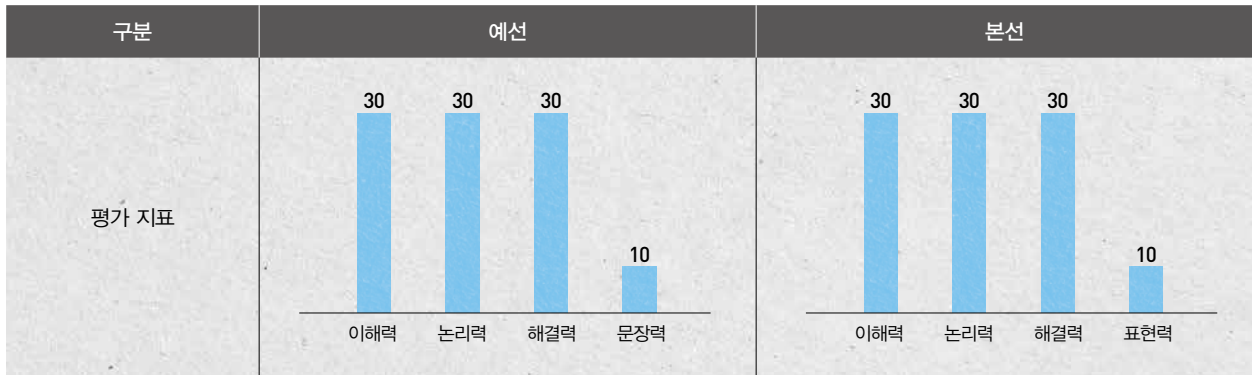


8월 27일,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열린 경연을 펼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고 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대회의 심사단은 변호사, 법전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프로세스

구분	예선	본선
심사 방식	서면심사 100%	서면심사 30%, 경연심사 70% ※ 결선에서는 경연심사 100%
진행 규칙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면 자료, 노트북 등 활용 가능 배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시 감점



치열한 경연 끝에 연세대학교 법전원 '서로서law'팀이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개인에게 주어지는 'MVP'는 고려대 '행법하자'팀 김서연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참가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 수상 내역

구분	소속	팀명
대상 (상금 200만원)	연세대 법전원	서로서law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고려대 법전원	행법하자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서울대 법전원	행진(眞)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연세대 법전원	늘면뛰行
우수상 (상금 50만원)	서울대 법전원	공심단
우수상 (상금 50만원)	부산대 법전원	위민행정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화상회의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대회가 예비법조인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Mini interview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로서law' 팀
김소연, 전옥선, 하지민, 한우림

우승 소감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같이 준비한 팀원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큼니다. 대회가 일주일 미뤄지며 개강 직전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본선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사람 수도 적어서 다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서로 의지하고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무 고맙습니다!

팀은 어떻게 구성하였나요?

같은 스타디를 하고 있거나 학부 때 학

회에서 같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여하였던 인연으로 함께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팀은 2학년인 김소연, 전옥선, 하지민과 1학년 한우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명 '서로서law'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서로 힘을 합쳐서 우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aw'와 발음이 유사한 '로'가 들어가는 예쁜 단어를 찾다가 '서로서law'가 어감이 좋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다 끝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4명끼리 서로서로 의지하며 이름처럼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5회 경연대회의 본선 문제를 본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나요?

(문제 소개) 제5회 경연대회 본선 사안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로, 사안의 쟁점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13명으로 공고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전 필기시험의 당초 합격선을 12위로 정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접근 방법) 리서치를 하면서 본선 과제가 실제 재결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실제 재결례를 정독하며 중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재결례에서는 '각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해보면서 인용 의견의 논리를 세우는 데 집중한 후 다시 그 인용 의견을 반박하는 각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 재결례, 논문, 시험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관계자 인터뷰 기사, 국가고시센터 시험종합안내 FAQ, 입법예고 등을 폭넓게 활용하였고 구글 공유문서로 심판개요서 및 경연준비대본을 작성한 후,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몇 번이고 논의를 거침으로써 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팀 내에서 '각각'과 '인용'의 의견으로 갈리지는 않았나요?

2명은 각각, 2명은 인용 의견에 더 공감하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며 새로운 근거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박빙의 공방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회 연습 시에는 모든 팀원이 양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바꾸어 가며 연습하였습니다.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A) 변론을 할 때는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 핵심에 대한 직접적인 재반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유토론 형식이다 보니 경연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즉석에서 반박하는 토론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B) 각 팀이 16분 만에 자유 발언을 마쳐야 했기에 발언 당 1분 30

초 이내로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현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 행정심판위원이시라면 어떻게 논의에 임하실까를 떠올리며 연습하였습니다. 준비한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상대팀의 발언을 정리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뒤, 저희가 준비한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C) 각 입장마다 강한 논거와 약한 논거를 구별하여 판단한 후 강한 논거가 있는 쟁점으로 논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었나요?

(A) 사안의 사실관계에 명확히 들어맞는 판례가 없을 때, 법리를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본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찾지 못하여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B) 같은 사건의 실제 재결례의 논리 구조와 중요 쟁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근거들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인용, 기각 의견의 입장에서 같은 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0조)을 상반되게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법적 해석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의행정심판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

(A)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문제 사안과 유사한 재결례를 검색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



은 쟁점을 잡은 다음 그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심판 개요서를 작성하고, 그 심판 개요서에 기초하여 인용설과 기각설의 공방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를 만들어 경연을 준비했습니다. 공방에 익숙해지면 다시 인용설, 기각설 표를 개별 파일로 분리한 다음, 다양한 소쟁점별로 각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1분~1분 30초 동안’ 말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하고, 경연 진행 시 필요한 논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각 소쟁점의 핵심을 짧은 소제목으로 달아두며, 기타 판례 등 참고자료는 소쟁점 옆에 작은 글씨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 대회 문제로 나오는 사안은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인용설과 기각설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초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진행의 장점은 1) 세종시까지 이동하지 않아 가깝고, 2) 부담이 적고, 3) 경연장 특유의 긴장감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고 낯선 장소에서, 떨리는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으므로, 온라인에서는 대회의 생생함이 덜했다는 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B) 대회 중 네트워크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대회 관계자분들께서 이들에 걸친 예행연습을 통해 네트워크, 스피커, 마이크를 점검해 주시고 돌발상황으로 대회가 중단될 경우의 경연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셔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B) 행정심판대회 참가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법률자문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로켓 제조회사 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는 이 기업들은 모두 미국의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손에서 탄생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일론 머스크처럼 법률자문 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김동현 학생.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이 시작됐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11기 김동현입니다. 급한 성격만큼 추진력이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취미는 복싱과 수상스키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수험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형과 함께 미국에서 타지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 다. 미국도 여느 나라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꼽아보자면 '다양성'과 '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 입시와 취업에서 성적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열정과 같은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있었기에 검증과 시 출신이었던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를 보셨나요?

낮선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느라 공부를 좀 소홀히 했어요(웃음).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입시 상담을 받아보니까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가 원하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를 들렀다가 편입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자퇴를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자퇴를 했고, 부모님께서도 공부를 위한 자퇴니까 기특하다고 하

시며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서 원하던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엔 경제학을 전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웃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다양성과 기회를 인정하는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그 감사함을 느꼈고,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그런 훌륭한 문화도 지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다 나은 국가, 기업, 개인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진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로 편입학을 하게 된 사연도 소개해 주세요.

군대 제대 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돌아갈 수 없었는데요. 이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로 편입을 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계기로 실력 없고 힘없는 개인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고, 학위보다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실력을 익혀야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요?

저는 당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컴퓨터학과 학생들 무리에

뒤섞여 컴퓨터 언어, 자료구조론 등 컴퓨터학과 전공수업을 들으며 공부했지요. 저와 같은 편입생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부와 활동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학교 선배를 주축으로 4학년 1학기 무렵 보험계리컨설팅 회사의 창업멤버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계리라는 경제학, 통계학 지식들과 IT 지식을 융합하여 컴퓨터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으로, 삼성생명, KDB생명, ING생명과 같은 고객사들의 회계자로 산출을 위한 준비금 산출모델, 현금흐름모델 등의 구축 및 효율성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저는 주로 산출 과정 및 속도 보안을 위해 모델을 개선하는 일을 하였고, 이때 학부에서 공부해 두었던 프로그래밍 언어 및 이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만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만큼 그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었고, 열정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컨설팅 경력을 이어가지 않고, 로스쿨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컨설팅을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법률시장은 아직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호기롭게 도전해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법학 비전공자의 로스쿨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웃음). 로스쿨 입학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아무런 법적 지식과 인맥이 없었던 저에게 로스쿨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습니다. 1학년 1학기에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와는 정말 달랐어요. 그 전까지는 주어진 지식을 깊은 이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법학은 방대한 양을 빠른 속도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관건인 학문이라라고요. 그동안의 공부 방법과 맞지 않아서 그런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는데(웃음), 좌절하지 않고 체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2학기 형법과목에서 처음으로 객관식 만점을 받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법학 공부에 조금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비록 많이 뒤쳐져 있지만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학부에서 공부할 때에는 모든 과목에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서 동일하게 잘하는 상태로 만들어 놔다면 법학은 모든 내용을 똑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고 확실하게 알아두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이나 내신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법조문을 시험기간 전에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두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전에 조금만 보고 들어가도 시험장에서 현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성장 과정의 매일매일을 함께 해준 동기, 선배,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는?

요즘은 2학년 2학기 형사재판 실무과목을 대비하기 위해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형법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웃음). 그런데 사실 제 경우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거든요. 그건 아마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일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몰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난달까요(웃음). 그래서 더욱 재미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실력이 늘어서 법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법이 정말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조계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법조인의 모습은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과 법률지식의 간격을 좁히려 노력하는 것이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 힘쓰시는 변호사님들을 모두 존경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변호사님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법률 상담 어플리케이션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본환 대표님을 가장 닮고 싶어요.

동현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꿈'이란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꿈은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것이예요(웃음). 우선 법률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법률자문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로스쿨에서의 시간이 절반 정도 남았네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로스쿨 1년 동안은 수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고집을 많이 부렸어요. 이제껏 형성된 저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었고, 1년 반의 로스쿨 생활은 그 고집을 조금씩 꺾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절반의 시간은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로스쿨에서의 3년을 잘 보내는 것이 저에게 큰 자신감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Lawschool TIP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입학 노하우&꿀팁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

30대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20대보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현실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학부 성적, 자소서 비중과 면접 비중 등의 각종 데이터를 로스쿨 별로 수집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분석했습니다.

경험을 살린 자기소개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더욱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어떤 동기를 형성하였는지, 그것이 3년의 수험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시대 노동법의 진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I. 서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AI 기술의 심화는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시대 일자리의 디지털화에 유독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패러다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대별되는 종속적 노동력의 활용관계는 공장제 일자리에 최적화된 것이었다. AI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종속적 노동은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 공산이 크다.¹⁾ 아날로그 노동시대는 가고, 디지털노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관련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산업환경이 진화해 나가는 만큼 법제도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법은 그렇다. 노동법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약자로서 근로자의 보호였다. 그런 근로자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영역과 내용도 변화되어야만 한다. 노동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에 얽매어, 사회현실의 진화를 간과하면서, 공장제 산업체계가 낡은 노동법 체계에서 AI 시대 노동법으로의 진화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II. 전통적 노동법의 규율대상으로서 종속적 노동과 ‘근로자’

1. 근로자 상의 진화

전통적 노동법에서 근로자상은 종속적 노동의 주체이다. 종속적 노동이

1) 미래 정보 사회가 초래할 노동의 디지털화는 노동의 양태와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곤 했다. 독일 연방노동복지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의 디지털화는 전반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종은 물론이고 정보, 서비스업종에 이르기 까지 노동의 디지털화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내 전체 취업자의 83%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에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98%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MAS, Digitalisierung am Arbeitsplatz, 2016, 6.)

란, 도구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지시권을 통해 인간을 단순히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계가 근로관계이고, 노동법을 이러한 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AI시대는 다르다. 사용자가 단지 지시한 바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인간이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AI시대 인간의 노동력이란, 창의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창의성은 자율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집단성과 종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AI시대 근로자상은 대공장 시대 근로자상과는 다르다. 노동법은, AI시대 새로운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2.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바라 본

일하는 방식의 진화

전통적으로 '노동'은 (i) 다수의 근로자들이 (ii) 동일한 공간에서 (iii) 동일한 시간에 (iv) 사용자에게 의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생산을 위한 노동은 참여자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일사분란하고 획일적이며 규격적인 지휘와 감독, 그리고 사업장 규율체계가 이러한 유기적 집단을 생산에 기여하게 만들었다. 그런 만큼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구축된 노동관련법제도 역시 공간적, 시간적 동일성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했다. 전통적 노동법이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획일적이고 규격적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AI 시대 초연결사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공동성은 불필요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초연결사회로서 장소적, 시간적 공동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지휘나 명령을 핵심 지표로 하는 전통적인 '종속관계성'과 배타적인 노무제공관계를 염두에 둔 '전속관계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형태의 노동이 보편화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AI 시대 노동관계법제도의 개편 방향성

1.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전통적인 노동법 규범의 틀 내에서 노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 노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배달 등 단순노무에서조차 이러한 변화는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그 예다. 자율적 노무제공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히 보인다. 그렇다면 자율적 노동 현상을 보편적인 노동법적 보호체계 내로 포섭하는 입법준비에 나서야 한다. 종속적 노동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법체제로 노동법이 거듭나야 한다.

2. 자율적 노동에 대한 보호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

AI시대 근로자는 스스로 최적의 근로시간과 근로 양을 결정하고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근로시간 규율과 그에 수반된 가산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근로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규율체계로의 개편을 꾀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새로운 단결권 보장 질서의 구축 필요성

단결권을 필두로 한 과거 대공장 체제 하에서의 근로자 연대 체계는 (i) 근로조건의 균질성, (ii) 근로자의 집단성 그리고 (iii) 근로공간의 동일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다. 노동은 고유한 속성으로서 '집단성'에서 벗어나 '개인화'와 '파편화'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단결권의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노동거래에 있어 공정성 확보의 수단이라면, AI시대에 이르러 자율적 노동을 포섭하는 새로운 노동3권 질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연대의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그리고 단체행동권 질서는 AI 시대의 근로자상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특히 동일 업종 참여 인력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근로자대표체



제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4. 초연결성 사회와 연결되지 아니할 권리의 조화로운 마련 필요성

AI 시대에 있어 노동법의 주요 규율대상은 - 전통적 노동법체계에서 매우 생소하였거나 간과되었던 - 정보보호가 될 것이다. 사용자는 경영정보 차원에서 근로자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어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사적 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게 될 것이다. AI 시대 노동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합리적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마련하는 합리적 조화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창의적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 체계 구축 필요성

AI시대 자율적 일자리는 곧 창의적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의해 지시받은 일만을 따라 하는 식의 일자리나, 누가 하더라도 차별화될 여지가 없는 일자리는 AI 시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일자리는 개인의 고유한 창의성이 투영되었을 때 비로소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직업훈련법제도 체계의 대대적인 미래지향적 개편이 필요하다. 창의적 노동이야말로 AI시대 인간의 노동력을 징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론

AI 시대의 도래는 노동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근로자상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과 환경이 진화하였다면, 노동관련법제도도 따라 진화해야 마땅하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질서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경제통계의 거짓말, 인간의 거짓말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법원의 판결문은 주문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 등으로 돼있다. 청구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경제관계도 비슷한 과정을 가진다. 사실을 확정하고 평가를 통해 문제와 해결책을 이끌어낸다.

경제사실은 대부분 통계기법을 이용해 표본조사로 전체를 추정해 파악한다. 이 때 작성권자는 통계목적, 표본설계, 이용지표 등을 미리 공표한다. 처음부터 통계를 보는 기본지표와 부가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엉뚱한 수치로 경제상황을 왜곡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취업자증가수로 고용수준을 따지고, 폐업자수를 신규사업자수로 나눠 자영업폐업률을 부풀리고, 중위가로 부동산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고용수준을 보는 기본지표는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학생, 주부, 환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고용률이 아닌 취업자증가수를 가지고 고용참사로 몰아세웠다. 2018년 취업자증가수가 △9만7000명이었는데 2017년 △31만6000명에 비해 -21만9000명이 줄었다는 게 이유였다. 취업자증가수란 전년에 비해 올해 늘어난 취업자수를 말하는데 결국 취업자증가수의 증가수가 줄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증가수는 고용률을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것이지

고용수준을 보는 지표가 아니다. 특히 인구 또는 인구증가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모인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자인 취업자수만 따지면 큰 오류에 빠진다.

간단히 예를 들면, 2016년(생산가능인구 100명, 취업자 50명), 2017년(생산가능인구 200명, 취업자 100명), 2018년(생산가능인구 250명, 취업자 130명)이라 가정해보자. 고용률은 2017년 50%에서 2018년 52%로 높아져 고용수준이 개선됐다. 그런데 취업자증가수로 따지면 2017년 $\Delta 50$ 명 증가에서 2018년 $\Delta 30$ 명 증가로 -20 명 감소해 나빠졌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전년에 비해 인구증가수가 50명 줄면서 취업자증가수도 20명 감소했을 뿐이다.

2018년 당시 전체 고용률(15세이상)은 60.7%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지만 2017년에 이어 역대 2위였고, OECD기준 고용률(15~64세)은 66.6%로 2017년과 공동 역대 1위였다. 고용률이 높았는데도 취업자증가수가 줄어든 것은 15~64세 인구가 처음으로 -6 만4000명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고용률이 높아져도 취업자증가수 뿐 아니라 취업자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당시 2017년 자영업폐업률을 87.9%이라고 부풀린 일이 있었다. 10개 중 9개 업체가 폐업했다면 온 동네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 실제 2017년 자영업폐업률은 11.7% 정도다. 자영업폐업률은 따로 나오지 않아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이용해 계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무려 4가지 오류가 있었다. ① 자영업폐업률

을 폐업자수/전체사업자수로 계산하지 않고 폐업자수/신규사업자수로 나눴다. ② '2017년 국세통계연보'는 2016년치 자료다. ③ 자영업자에 개인 외에 법인까지 포함했다. ④ 전체가 아닌 도·소매, 숙박·음식점업만 대상으로 해 부풀렸다.

폐업자수를 신규사업자수로 나누는 것은 마치 사망자수를 신생아수로 나눠 사망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지난 2000년 초반에도 이혼율을 이혼건수/혼인건수로 나눠 혼인한 사람 중 절반이 이혼했다고 해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설령 폐업자수/신규사업자수로 수치를 구해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는 2002년 621만명(취업자의 28%)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561만명(취업자의 21%)까지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자영업자 감소의 10배 이상 임금근로자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선진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아 더 줄어야 한단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규사업자가 늘어난다고 마냥 좋다고 할 수 없고 폐업자수/신규사업자수가 감소해도 자영업 상황이 개선된 건지 아니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늘어난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올해 6월에는 경실련이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의 중위가로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5월~2020년5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52%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종종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질 때 어떤 아파트 가격이 2배나 가격이 올랐다면 실제 거래가를 들이대거나 중위가 변동률을 가격상승률이라고 내놓곤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파트 매매할 때 참고할 순 있어도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판단하는 지수가 아니다.

실거래가는 신고된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가격이다. 그러나 매매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를 대표하는 게 아니며 아파트가 낡거나 리모델링이 되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우연에 기해 가격이 변동하면 연속적인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

중위가는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도시재개발 등으로 낡은 아파트가 빠지고 신규 아파트가 표본에 편입되면 중위가가 올라간다. 반대로 도시슬럼화가 진행되면 중위가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표본 변화가 심하면 연속 시계열을 보기 어렵고 한 시점에서 지

역 간 가격차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즉 현재 시점에서 서울, 부산, 대전 아파트의 가격수준을 비교할 때 쓰는 지수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평균(중위)가격 이용시 유의사항'으로 공시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현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시계열상 통계 단절이 발생하는 실거래가나 중위가로 상승률을 비교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더욱이 연도별로 가격 지수, 실거래가, 중위가 변동률을 취사선택해 비교하면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가격 상승률은 거주하던 거래되든, 상태가 좋은 나쁜든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한 가격지수 변동률을 본다. 국가지정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으나 그 후에도 양 기관 모두 부동산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13.7% 상승, 6개 광역시는 2.1% 상승, 지방까지 포함한 전국 상승률은 1.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8개 지역이 올랐지만 부산, 울산, 충청도, 경상도 등 9개 지역은 내렸다. 아파트별로 오른 데가 있지만 내린 데도 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서울이 높고 지방은 낮아 전국 평균이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가격지수로 일관성 있게 시계열을 비교하면 연도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거래가 되지 않거나 낡은 아파트의 낮은 가격까지 모두 포함하니



실제 거래된 매매가보다 변동률이 작게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수치가 생각보다 작다며 본인의 체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적 확증을 객관적 사실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체감은 보통 주변에서 관찰했거나 지인에게 들었거나 언론에 노출된 일부 수치에 영향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식이면 아마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인 것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사지 않는 사과, 마늘, 학생복 가격 등은 빼고 음식값이나 커피값을 체감이라 생각하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보인다.

통계란 각자의 제한된 인식이 달라 의견이 갈리니 표본을 선정해 전체를 추정해보자고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나온 수치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시 체감을 주장해 원점으로 돌리면 통계를 만들 이유가 없다.

경제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전부 충족하기 어렵고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갈등을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지표로 희망이나 공포를 부풀리면 경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 과잉규제·지원을 불러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경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든 법이든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비로소 다룰 의미가 있다.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사실 왜곡으로 혼란만 가중해서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2020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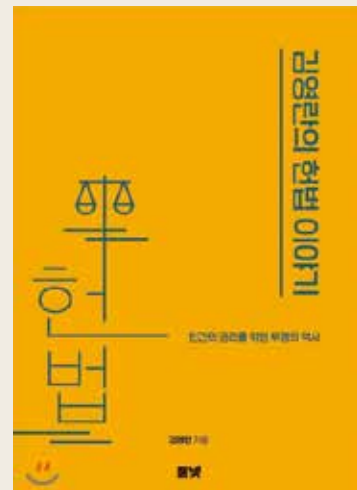
지난 8월에 시행된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20년도 제2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2016년에 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법과 정의에 대한 상식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말한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굽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저 자	김영란
출 판 사	풀빛
발 행 일	2020.07.10.
판매가격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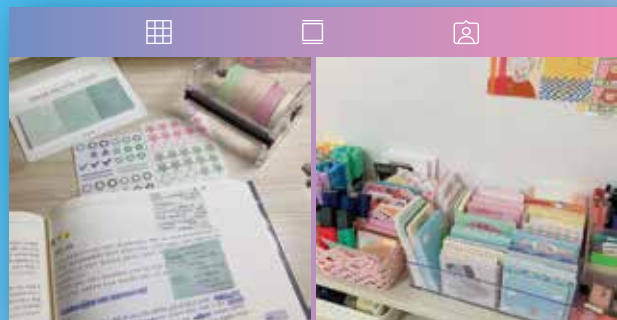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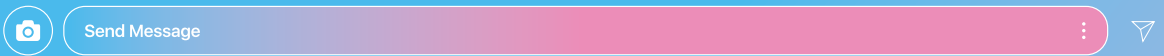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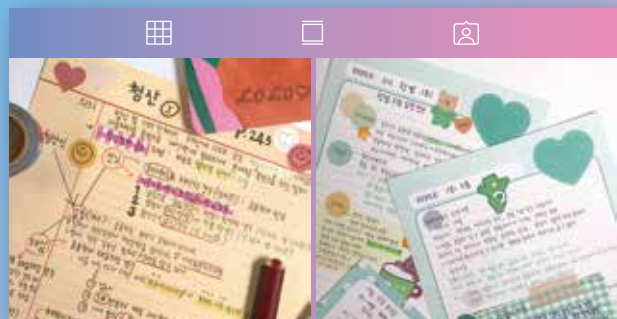
역병의 창궐은 정독실에서 책상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실현하던 로스쿨 학생들을 고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집콕 라이프'를 누구보다도 알차게 실현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 감각적인 책상 꾸미기는 그들만의 작은 활력소.

로생의 흔한 책상 풍경.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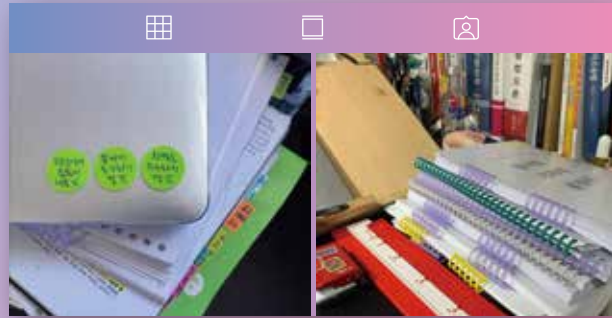
#공부기록 #공부인증 #출석체크 #로스스타그램 #책상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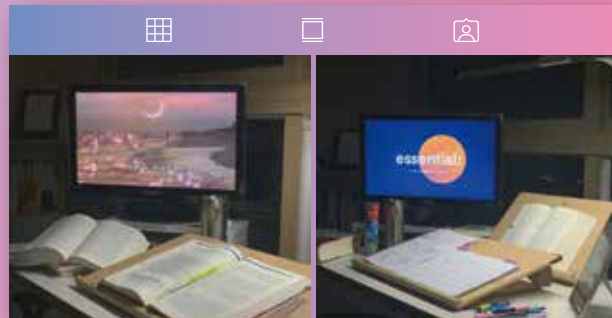
>>
'로스쿨시로서로'라는 아이디어와 다르게 제법 즐기면서 공부하는 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책상.
#문구덕후 #포스트잇 #형광펜
#문구점 # 옮겨다놓은줄 #내돈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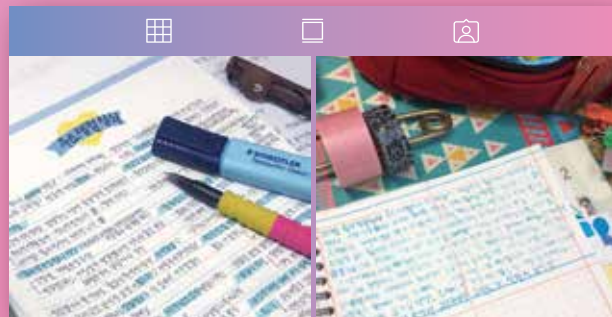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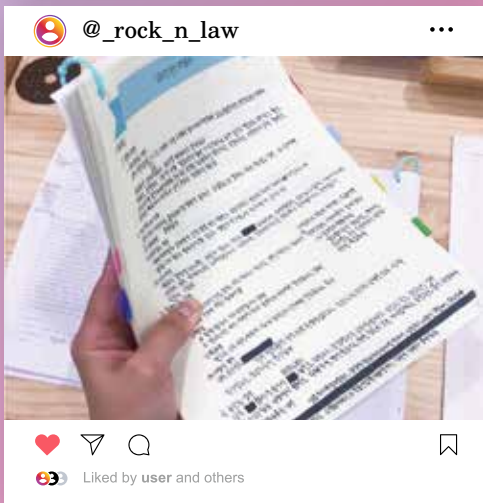
>>
스티커와 마스킹테이프만 있으면 필기, 어렵지 않아요.
#필기의神 #다들이정도는하지않아요?
#교수님잠시만요 #스티커좀붙이고요 #금손인증



>>
 각종 자료와 법전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놓여있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책상.
 #마법의공간 #무엇이어디에있든 #나만아는게
 #포인트 #셀프감금



>>
 로생의 낮과 밤 사이를 촘촘하게 채워주는 건 뭐다? (응, 공부)
 #감성 #갬성 #이밤의끝을잡고 #밤공부
 #오늘도뜨눈으로밤을지낸다



>>
 정리는 나의 힘. 주요 쟁점에는 하트(♥)를 그려줘야 기부니가 좋아요.
 #암기꿀팁 #노트필기 #시간순삭 #여긴어디
 #필기만했을뿐인데 #외워진기분 #기분탓

안구건조증과 눈 건강

안구건조증은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인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병이라고 오해를 한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에 걸리면 반대로 보통사람보다 눈물이 더 많다.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강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온라인 동영상이다. ‘혼술(혼자 먹는 술)’도 각자 집에서 온라인 라이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건배하고 즐기는 혼술, 온라인 회식으로 바뀌고 있다. 밖에서 하던 활동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흔히 ‘랜선문화’라고 말한다. 랜선은 근거리통신망을 의미하는 랜(LAN)과 선(Cable)의 합성어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랜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다보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부위가 눈이다. 쉬지도 않고 스마트폰,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기만 하니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눈은 평소에도 각막을 통해 외부 사물을 받아들여 망막에 상을 맺어 인식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여기에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바라보면 눈의 노화는 더욱 가속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사물을 가까이 보려면 모양체 근육이 당겨지고 수정체가 볼록해져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모양체 근육이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피로도가 커져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진다.

휴식 후에도 모양체 근육이 조절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박이는 횟수가 줄고 눈을 깜박여도 제대로 깜박이지 않아 눈물 띠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 눈은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5회 정도로 줄게 된다.

이처럼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하면 눈 깜빡임 장애나 눈꺼풀염, 눈 피지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있으며 눈곱이 자주 끼고 충혈되는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고 안구·전신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각결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눈질환은 안구건조증, 눈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조절장애, 모니터의 청색광으로 인한 망막변성 등이 있다.

특히 안구건조증은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인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병이라고 오해를 한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에 걸리면 반대로 보통사람보다 눈물이 더 많다. 이는 눈물에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기본적인 눈물’과 ‘반사적인 눈물’ 두 가지다. 기본적인 눈물은 눈 표면에 항상 일정량 존재하면서 윤활 기능과 세균이나 이물을 세척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등 눈물 그 자체의 기능에 충실한 눈물이다. 이에 비해 반사적인 눈물은 즉각적인 감정에 대한 반사기능, 즉 슬프거나 아플 때, 눈에 자극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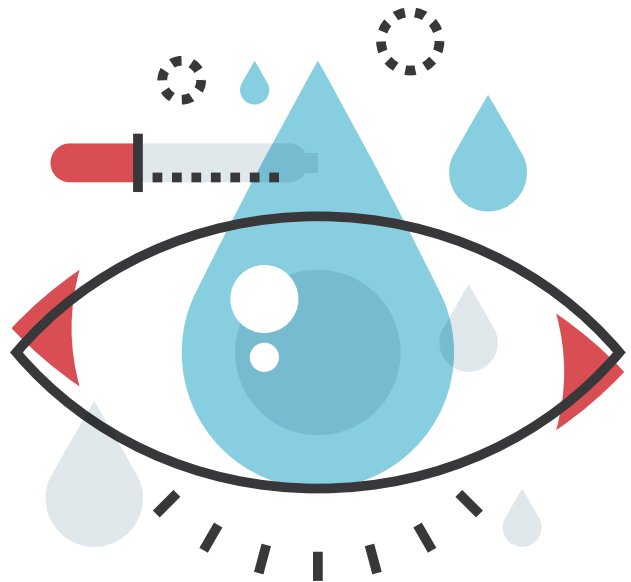
안구건조증 환자가 부족한 것은 이 중에서 ‘기본적인 눈물’이다. 윤활유가 없어 자극을 쉽게 받은 눈은 눈물(반사적인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본 눈물이 나오지 않아 눈이 뻑뻑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안구건조증 및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이려면 평소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버스 등 흔들리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집에 와서는 엎드려서 책을 보지 말고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책을 본다.

어두운 곳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피한다. 모니터를 볼 때는 안구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잠시 먼 데를 보는 것이 안구건조증 예방에 좋다. 스탠드 불빛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피한다. 스탠드는 책상 왼쪽에서 약간 윗부분을 향하도록 하며 책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만약 장시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을 경우엔 1시간마다 5분 정도 휴식을 갖고, 되도록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좋다. 먼 곳을 바라보면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 눈에 들어갔던 힘이 풀려 눈이 편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눈이 너무 건조할 때는 물을 자주 마셔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공눈물은 기본적인 눈물의 3가지 성분인 지방층·수



성층·점액층이 잘 유지되도록 한다. 하지만 치료약이 아니고 단지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인공눈물 대신 생리식염수나 소염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리식염수는 눈을 잠시 적셔 주는 효과는 있지만 눈물의 면역 물질 등 중요 성분을 씻어내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소염제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녹내장·백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흔히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는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 누구는 “눈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눈 건강 및 눈 질환 예방법은 매년 눈 검사를 받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정확한 시력 검사를, 성인들은 시력 검사를 포함해 안저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영양제나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모두 건강보험이 지원되므로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다.

※ 이진한 기자의 유튜브채널 특투건강 '눈 건강'편 <https://youtu.be/iz-cKcU9ufY>



남기엽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미술이 좋아 어려서부터 루브르, 프라도, MOMA 등을 누볐다. 설계된 사건 중 길을 찾아야 하는 송무와 달리 그림은 감상자가 온전히 세계를 구성하여 길을 만드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현재 남편의 미술노트, 남편의 음악노트 등을 연재 중이다.

[남편의 미술노트2] 잠자는 집시

적막한 공포에 젖은 서늘한 밤숲을
모차르트의 작은별변주곡은 천국의 계단으로 바꾸었다.

- 나르테스크 카이아느 -

무엇이 분위기를 만들까.

- 멋진 뷰?
- 개러지 와인?
- 떡갈나무 쓴 정갈한 가구?

경험상 어떠한 재료도 음악 없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철학자 카이아느가 어릴 적 무서운 숲길을 이겨내기 위해 축음기를 들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것처럼,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 공기를 온기로 만들어 녹여버린다.

어릴 때부터 도이치 그라모폰 음반과 함께 컸고,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지만 미술은 유독 내 눈길을 끄는 주제가 아니었다.

몬드리안, 고갱, 세잔 어느 대가들의 그림을 봐도 난삽했고 몽크의 <절규>정도가 그나마 아 좀 이해된다는 수준이었다.

그런 내가 조금씩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앙리 루소(Henri Rousseau, 1844-1911)의 신비한 그림 때문이었다.

그림을 보면, 머리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검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들어진 비슷한 악기가 자리한다.

그 옆엔 물병이, 그 아래엔 이불이 있고 막대기를 쥐고 있다.

뒤에는 달이, 그리고 옆에는 사자가.

신비한 건, 달이 해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는 지점이다.

사자는 뭘 하려던 것일까. 이에 대해 원작자 루소는 이렇게 해제한다.

“만돌린을 연주하며 방랑하는 흑인 여인이 물병을 옆에 놓고 잠 들었다. 지나가던 사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냄새를 맡았으나 잡아먹지 않았다.”

- 앙리 루소(Henri Rousseau) -

적막한 사막, 생경한 여인의 만들어진 연주에 잠든 사자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여인은 잠들고 사자는 털을 여인의 머리칼에 맞대며 후각에 집중한다.

그 순간 여인은 꿈꾼다. 집시는 집도, 소유물도, 가정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방랑한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편히 잠을 자고 서로에게 꿈을 꾸게 한다.

그것이 비록, 사자같은 맹수라 할지라도, 불편, 불안과 같은 위협이라 할지라도, 물병 하나 소중한 굶주림이라 할지라도 그 간극은 음악이 채운다.

이러한 집시의 '위험할 자유'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겹친다.

성병에 걸릴 권리, 굶을 권리, 더러울 권리, 고통에 시달릴 권리를 주장하는 새비지에게는 집시의 여인이 견지한 삶

의 태도에 결코 어색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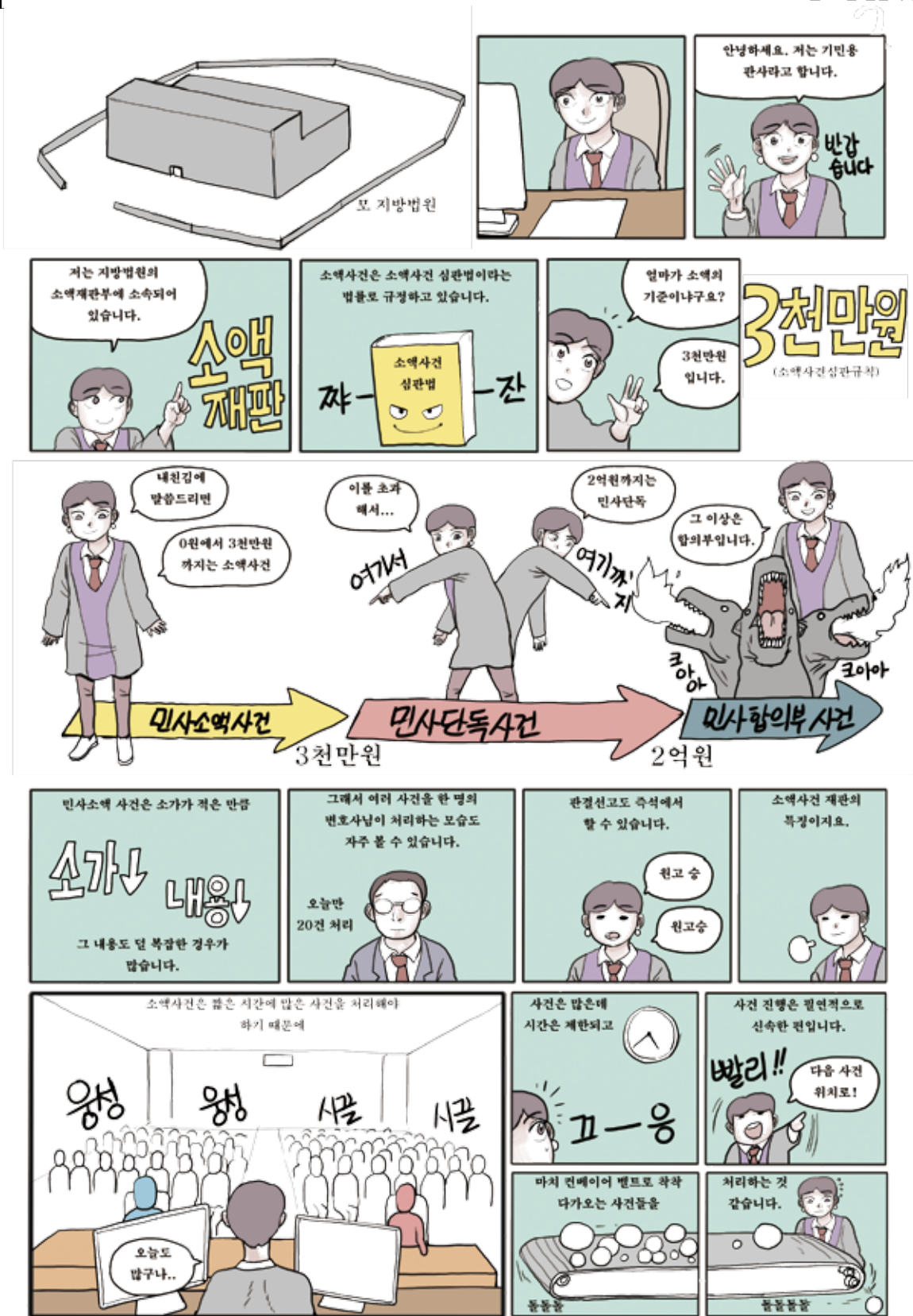
집시는 어디에나 존재하나,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는다. 존재하며 달을 밝히고, 위험과 교감하며, 어디론가 사라진다.

공기를 온기로 만들어 녹이는 음악처럼, 그들은 다시 내 일이면 사자의 털몽치와 올망졸망한 눈빛을 기억하며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떠날 것이다.

그림에 단 하나의 발자국도 없는 것처럼.



잠자는 집시 (1897) <일리 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0가소XXXXXX
원고 홍길동
피고 장길산
변론종결 2020. 2. 5.
판결선고 2020.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실구성지

1. 위고는 원고에게 철거를 지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결명할 수 없다.

판사 일각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천재 화가로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며 불꽃 같은 예술세계를 보여준 장 미셸 바스키아의 대규모 전시가 국내에서 개최된다. 1980년대 초 뉴욕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바스키아는 자유와 저항의 에너지로 점철된 새로운 예술작품을 통해 현대 시각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금까지도 젊음의 대명사이자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바스키아의 주옥같은 작품 150여 점이 국내 최대 규모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 🕒 전시기간 2020.10.08. ~ 2021.02.07.
- 📍 전시장소 롯데뮤지엄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www.lottemuseu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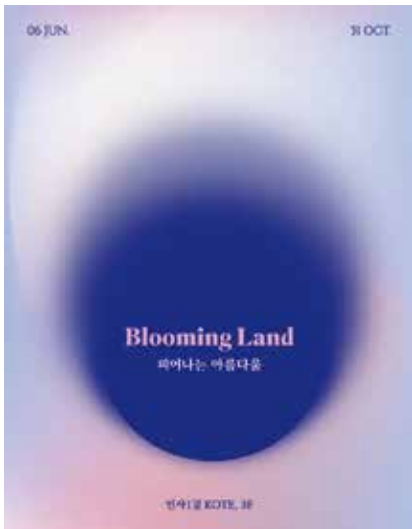


폴리처상 사진전 SHOOTING THE PULTZER



1998년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3차례 전시에서 서울에서만 5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전으로 기억되는 폴리처상 사진전의 2020년 전시회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한국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한 로이터 통신 김경훈 기자의 사진도 공개된다. 김 기자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행렬인 카라반을 취재하며, 미국 국경지대에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온두라스 소녀의 사진을 찍어 큰 충격을 안겨줬다. 분쟁 지역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사망한 기자 안야 니드링 하우스의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 🕒 전시기간 2020.07.01. ~ 2020.10.18
- 📍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www.sac.or.kr/>



피어나는 아름다움 Blooming Land



다양한 작가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시인 'Blooming Land: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오는 10월 31일(토)까지 인사 1길 KOTE에서 열린다. 총 일곱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에서 10여 팀의 참여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전시는 '아름다움'을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작가가 제안하는 다양한 작품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대해 한번쯤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사유의 장을 제공할 뿐이다.

- 🕒 **전시기간** 2020.06.06 ~ 2020.10.31
- 📍 **전시장소** 인사1길 kote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한 여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위대한 여정 연극 그을린 사랑



2020년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한국 최고의 연극 작품으로 공인받은 신유청 연출가의 <그을린 사랑>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동명 영화로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오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유언에 따라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의 흔적을 되짚으며 고국 레바논으로 간 남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연극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등을 통해 세련된 미장센과 연출을 선보여 '연극계의 봉준호'로 불리는 신유청이 무대를 밀도 있게 꾸려갈 예정이다.

- 🕒 **공연기간** 2020.09.23. ~ 2020.09.27.
- 📍 **공연장소** LG아트센터
- 🎫 **티켓가격** R석_65,000원, S석_45,000원
- 🌐 **홈페이지** <http://www.lgart.com/>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9일(수)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중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김문석 원장, 박형준 수석교수 외 4인의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법전문협의회 측에서는 김순석 이사장, 한기정 원장(서울대), 이동형 원장(영남대), 송양호 원장(전북대), 김재봉 원장(한양대),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관리 방안, 2020년 하계 연수, 재판실무과목 운영 방안, 법전문 전용 교재 발간(민재실, 형재실)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 실무자 회의 개최



지난 8월 12일(수)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개별 입학설명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25개교 법전문 입학담당자 38인이 참석했다. 지난 7월 법전문 원장단이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금년도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5개교 법전문은 8월 말에서 9월 중 소규모 입학설명회 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법전문협의회는 25개교의 개별 입학설명회 일정 및 입학요강을 취합하여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21학년도 법학적성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취임



최윤철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구분	유민펠로우 국제기구 인턴 파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감각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제NGO 단체 인턴 희망자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함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법전원의 경우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하여 2021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자도 포함)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인턴 근무 예정인 자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생활비(미화 1,500달러 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왕복항공료
선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서류심사 2차: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면접 실시)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 접수: 2020.8.24.~2020.9.18. 지원자 심사: 2020.9.18.~2020.10.14. 결과 발표: 2020년 10월 말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ail 접수(파견지원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학장 추천서) 응모자를 취합하여 학교별로 제출(학교별 3명 이내)
문의사항	www.yuminlaw.or.kr

구분	유민펠로우 국제 강좌 참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에 전문성을 키울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아래의 국제 단기 강좌 희망자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함 ① 헤이그 아카데미 섬머코스(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Summer Courses) ② 샤먼 아카데미(The Xiamen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③ 로데스 아카데미(Rhodes Academy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 ④ 르네카신 아카데미 섬머스쿨(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Europe in Strasbourg Foundation Rene Cassin) ⑤ 제네바 아카데미(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학원 법학과(법전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 대상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강좌 400만원, 아시아 강좌 300만원 (항공료, 강좌 등록비, 최소 생활비 모두 포함)
선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서류 심사 2차: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 접수: 2020.8.24.~2020.9.24. 지원자 심사: 2020.9.18.~2020.10.14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ail 접수(파견지원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학장 추천서) 응모자를 취합하여 학교별로 제출(학교별 3명 이내)
문의사항	www.yuminlaw.or.kr

12th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법역량강화 및 국제소송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2020년 10월 10일(토)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일정 및 장소 ○ 시상내역

- 문제 공고: 7월 6일
- 참가신청기간: 7월 6일 ~ 8월 31일
- 참가희망자 워크샵: 8월 1일 (연세대학교)
- 서면본문서 접수: 9월 1일 ~ 9월 21일
-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0월 10일 (연세대학교)
- 모든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

- 최우수상(팀) 외교부장관 표창과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600만원
- 우수상(팀) 외교부장관 표창과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400만원
- 최우수변론상(1인) 외교부장관 표창과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100만원
- 본선진출팀 (수상팀 제외 67팀)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각 100만원
- 심사결과 등급별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

- 워크샵 개최일 (8월 1일) 기준으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포함)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 (휴학생 포함)
※단 법학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국제법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되며, 전년도 수상팀의 구성원은 참가할 수 없음
- 팀 구성원은 최소 2인 내지 최대 4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경연대회 참가팀이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출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가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경연대회 참가희망자는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 (<http://www.ksil.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ksil@ksil.or.kr)로 제출함
- 구두변론을 실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제2차 본문서 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